멍냥뉴스
동네방네

구독자 무료 가이드 · 1권 · 나눔판 2/2

처음부터 노견까지 강아지 관리 가이드북

위생·교육·산책·계절과 응급·노견

목욕과 미용, 교육, 산책과 펫티켓, 계절별 관리와 응급 대처, 노견 케어까지. 우리 아이 프로필과 월별 체중 기록을 함께 담았어요.

멍냥뉴스 동네방네 · dogdo209.com · 2026년판

이 책을 펼친 보호자님께

안녕하세요, 포근발자국입니다.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을 한 권으로 모았습니다.

나눔판 2/2 안내
이 소책자는 『강아지 관리 가이드북』 전체판에서 주제별로 나눈 나눔판 2/2예요. 장 번호는 전체판 번호를 그대로 두었어요. 나머지 장은 나눔판 1/2 「입양 준비·첫 30일·먹이기·건강」 또는 전체판(mungnyang-dog-care-guide-vol1.pdf)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보다, 필요할 때 해당 장을 펼쳐 보는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책 곳곳의 체크리스트는 인쇄해서 냉장고에 붙여 두셔도 좋습니다.

> 이 책의 내용은 일반적인 관리 정보입니다. 아이의 상태에 맞는 판단은 반드시 담당 수의사와 상의해 주세요.

5장. 위생·미용



위생 관리는 짧고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날 때마다 간식으로 보상하면 "관리는 좋은 일"이라고 배웁니다.

관리 주기 한눈에 보기

항목	권장 주기	포인트
양치	매일 (최소 주 3회)	강아지 전용 치약만. 사람 치약 금지
빗질	장모종 매일, 단모종 주 2~3회	털 뭉침 예방, 피부 상태 확인
목욕	2~4주 1회	너무 잦으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발톱	2~4주 1회	걸을 때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나면 깎을 때
귀 청소	주 1회 확인, 필요할 때 청소	면봉을 귀 안 깊이 넣지 마세요
눈 주변	매일	눈물자국은 젖은 거즈로 부드럽게
항문낭	필요할 때	엉덩이를 바닥에 끌면 병원·미용실에서 짜 주세요

목욕 순서

1. 목욕 전에 빗질로 엉킨 털을 풀어 줍니다.
2. 미지근한 물(손목에 대 봤을 때 따뜻한 정도)로 발부터 천천히 적십니다.

3. 강아지 전용 샴푸를 사용하고, 얼굴은 물만 묻힌 수건으로 닦습니다.
4. 거품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굽니다.
5. 수건으로 물기를 누른 뒤, 드라이어는 미지근한 바람으로 멀리서 말립니다. 피부까지 완전히 말리지 않으면 피부염의 원인이 됩니다.

발톱 깎기 요령

- 발톱 안의 혈관을 피해 끝부분만 조금씩 자릅니다. 흰 발톱은 분홍빛 부분 앞까지만 자르세요.
- 검은 발톱은 혈관이 보이지 않으므로 1mm씩 나눠 자릅니다.
- 피가 나면 지혈제나 깨끗한 거즈로 1~2분 눌러 줍니다.
- 너무 싫어하면 하루 한두 개씩 나누어 자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양치 습관 만들기

3세 이상 강아지의 상당수가 치주 질환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손가락에 치약을 묻혀 맛보기 → 입술 들기 → 손가락 칫솔 → 칫솔 순서로 1~2주에 걸쳐 천천히 익숙해지게 해 주세요. 입냄새가 심하거나 치석이 누렇게 보이면 병원에서 스케일링을 상담하세요.

6장. 교육·행동



교육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잘한 행동은 즉시 보상하고, 원치 않는 행동은 보상받지 못하게 합니다. 체벌과 큰 소리는 공포와 공격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교육 기본 원칙

- **타이밍:** 행동 후 1~2초 안에 칭찬과 간식을 줍니다.
- **짧게:** 한 번에 5~10분, 하루 2~3번이 적당합니다.
- **일관되게:** 가족 모두 같은 단어와 규칙을 씁니다.
- **성공으로 끝내기:** 잘하는 동작 하나로 마무리합니다.

배변 훈련

1. 자고 일어났을 때, 밥 먹고 10~20분 뒤, 신나게 논 뒤에 배변 장소로 데려갑니다.
2. 배변판에서 성공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칭찬하고 간식을 줍니다.
3. 실수했을 때는 혼내지 말고 조용히 치우세요. 효소 세정제로 냄새를 없애야 같은 곳에 다시 하지 않습니다.
4. 성공률이 오르면 배변 공간을 조금씩 줄여 나갑니다.

기본 명령 5가지

명령	가르치는 법	왜 중요한가
이름 부르면 보기	이름을 부르고 눈이 마주치면 보상	모든 교육의 시작
앉아	간식을 코 위에서 뒤로 넘기면 엉덩이가 내려감	흥분 진정, 산책 전 대기
기다려	앉은 상태에서 1초부터 시간을 늘림	차도·문 앞 안전
이리 와	가까운 거리에서 부르고 오면 큰 보상	위험 상황에서 불러들이기
놓아	장난감과 간식을 교환	위험한 물건을 입에서 빼기

자주 겪는 문제 행동

- **짖음:** 초인종·발자국 소리에 짖는다면 작은 소리부터 들려주고 조용할 때 보상하는 둔감화 훈련을 합니다.
- **물기(퍼피):** 손을 물면 놀이를 멈추고 씹는 장난감을 대신 줍니다. 이갈이 시기(생후 3~6개월)에 특히 심합니다.
- **분리불안:** 외출·귀가를 대수롭지 않게 하고, 노즈워크 장난감을 주고 나갑니다. 짧은 외출부터 연습하세요.
- **점프:** 뛰어오르면 몸을 돌리고, 네 발이 땅에 닿으면 인사합니다.

공격성(으르렁거림·물기)이 갑자기 생겼다면 통증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먼저 병원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반려견 행동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포근발자국에서 더 읽기**
>
> - 아파트에서 퍼피 배변 훈련하기
> - 앉아·기다려·이리 와 기본 명령 가르치기
> - 퍼피 무는 버릇 고치기
> - 분리불안 신호와 해결 방법
> - 훈련용 간식 고르는 법

7장. 산책·운동·사회화와 펫티켓



산책은 운동이자 냄새로 세상을 읽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강아지는 하루 1~2번, 총 30분~2시간의 산책이 필요합니다.

크기·나이별 산책 가이드

구분	하루 산책	참고
퍼피 (접종 완료 후)	5분부터 시작해 천천히 늘리기	냄새 맡기·구경 위주
소형 성견	30분~1시간	두세 번 나눠도 좋음
중·대형 성견	1~2시간	달리기·공놀이 추가
단두종 (퍼그·불독)	짧게 자주	더운 날 호흡곤란 주의
노견	20~40분, 여러 번	평지 위주, 무리하지 않기

사회화

생후 약 3~14주는 새로운 사람·소리·장소를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접종 전이라도 안아서 바깥 구경하기, 집에서 다양한 소리 들려주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 다양한 사람(어린이, 모자·우산 쓴 사람)
- ☐ 생활 소음(청소기, 초인종, 차 소리)

- ☐ 다양한 바닥(잔디, 모래, 맨홀 뚜껑)
- ☐ 차량 이동, 이동장
- ☐ 성격 좋은 개와의 짧은 만남(접종 완료 후)
- ☐ 몸 만지기(발, 귀, 입 들기)

펫티켓 — 법으로 정해진 것과 배려

법적 의무(위반 시 과태료)

-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고,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합니다.
- 배설물은 즉시 수거합니다.
- 등록대상동물은 인식표를 붙입니다.
- 공동주택 복도·엘리베이터·계단에서는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습니다.
- 맹견(도사견·핏불테리어 등 법정 5종과 그 잡종)은 외출 시 입마개 착용 등 추가 의무가 있습니다.

지키면 좋은 배려

- 다른 개·사람에게 다가가기 전에 보호자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 소변을 본 곳에는 물을 뿌려 줍니다.
- 반려견 출입이 안 되는 곳은 미리 확인합니다.
- 공동주택에서는 늦은 시간 짖음에 신경 씁니다.

산책 가방 체크리스트

- ☐ 목줄(2m 이내)·인식표
- ☐ 배변봉투·물티슈
- ☐ 물·휴대용 물그릇
- ☐ 소변 헹굴 물
- ☐ 소량의 간식(돌아오기 보상용)

포근발자국에서 더 읽기

- 사회화 황금기 놓치지 않기
- 산책 줄 당김 고치는 훈련
- 줄을 세게 당기는 강아지용 하네스 고르기

8장. 계절별 관리와 응급상황 대처



한국의 뚜렷한 사계절은 강아지에게도 계절별 주의점을 만듭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한여름 열사병입니다.

계절별 체크포인트

계절	주의할 것	대처
봄 (3~5월)	털갈이, 진드기 활동 시작, 황사·미세먼지, 꽃가루 알레르기	빗질 늘리기, 외부기생충 예방 재개, 미세먼지 나쁨 날 실내 놀이
여름 (6~8월)	열사병, 뜨거운 아스팔트, 장마철 피부병·외이염, 모기	아침·밤 산책,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지 않기, 목욕 후 완전 건조
가을 (9~11월)	성묘·등산 진드기, 털갈이, 식욕 증가	산책 후 몸 점검, 체중 관리
겨울 (12~2월)	저체온(소형·단모·노견), 염화칼슘, 건조한 피부, 난방기 화상	옷·신발, 산책 후 발 씻기, 습도 유지

열사병 대처

헐떡임이 멈추지 않고, 혀가 진한 빨간색·보라색이 되고, 비틀거리거나 구토하면 열사병을 의심하세요.

1.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실내로 옮깁니다.
2. 시원한 물(차가운 얼음물은 금지)을 몸에 적시고 선풍기 바람을 씁니다.

3. 의식이 있으면 물을 조금씩 줍니다.
4. 상태가 좋아 보여도 바로 동물병원으로 갑니다. 장기 손상이 뒤늦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별 첫 대응

상황	집에서 할 일	하지 말 것
독성 음식·약물 섭취	먹은 것·양·시간을 메모하고 포장지를 챙겨 병원으로	지시 없이 구토 유도, 소금물 먹이기
출혈 상처	깨끗한 거즈로 5분 이상 압박	지혈 전에 자꾸 떼어 확인하기
경련	주변 물건을 치우고 시간을 재고 영상으로 찍기	입에 손 넣기, 꽉 붙잡기
이물질을 삼켜 켁켁거림	보이는 것만 조심히 꺼내고 즉시 병원	보이지 않는 것을 당기기
넘어짐·교통사고	담요나 판자로 움직임을 줄여 이동	아파하는 개의 입 가까이 얼굴 대기(물 수 있음)

미리 할 일: 집 근처 24시 동물병원 위치와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9장. 노견 케어



소·중형견은 보통 7세, 대형견은 5~6세부터 노령기로 봅니다. 이 시기부터는 건강검진을 1년에 2번으로 늘리는 것을 권합니다.

노화의 신호

- 잠이 늘고 산책에서 쉽게 지칩니다.
- 계단·소파를 오르기 싫어합니다(관절 통증 가능성).
- 눈이 뿌옇게 변하거나 불러도 반응이 느려집니다.
- 밤에 배회하거나 집 안에서 길을 잃습니다(인지기능 장애 가능성).
-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이 늘거나 체중이 변합니다(신장·내분비 질환 가능성).

이런 변화를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상당수는 치료나 관리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견에게 맞는 생활 환경

-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소파·침대용 계단(슬로프)을 두세요.
- 밥그릇·물그릇을 목 높이까지 올려 주세요.
- 관절에 부담이 적은 두껍고 폭신한 방석을 줍니다.
- 가구 배치는 되도록 바꾸지 마세요. 시력이 떨어진 강아지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 산책은 짧게 여러 번, 냄새 맡기 위주로 바꿉니다.

노견 건강검진 항목 (상담용)

- ☐ 혈액검사(간·신장 수치)
- ☐ 소변검사
- ☐ 심장 청진, 필요 시 초음파·엑스레이
- ☐ 혈압 측정
- ☐ 치아·구강 검사
- ☐ 피부 혹 검사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

언젠가 다가올 이별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아이에게 마지막까지 편안한 시간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증 관리와 호스피스 케어에 대해 수의사와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넌 뒤에는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며, 장례는 정식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세요. 슬픔이 오래갈 때는 펫로스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포근발자국에서 더 읽기**
>
> - 노견 케어 체크리스트

부록

A. 우리 아이 프로필

항목	내용
이름	
견종 / 성별	
생년월일 / 입양일	
동물등록번호	
중성화 여부 / 날짜	
알레르기·지병	
단골 동물병원 / 연락처	
24시 응급 동물병원 / 연락처	

C. 월별 체중 기록

월	체중(kg)	메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D. 나가며



강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이 책이 그 시간을 조금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포근발자국(dogdo209.com)에서 계속 나눠 드릴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다음 글의 주제로 삼겠습니다.

포근발자국 바로 가기: 주소창에 dogdo209.com을 입력하거나 즐겨찾기에 추가해 두세요. 이 전자책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예비 보호자에게도 블로그 주소를 알려 주세요.

E. 알려드립니다 (면책 문구)

이 전자책은 반려견 보호자를 위한 일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수의사의 진단·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관계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 자료의 무단 전재·재배포를 금합니다. © 2026 포근발자국 · dogdo209.com